

남원시 '주민 주도형 축제' 농촌 달군다

노을음악회·서도역가을음악회·숲속작은음악회 등 잇따라 마을공동체서 기획... 지역자원 활용·주민 화합 다질 기회

농촌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주민 주도형 농촌축제'가 남원지역의 여름·가을 농촌을 시끌벅적하게 달군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역자원을 활용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고자 주민 주도형 농촌축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8·9월 마을 공동체들이 기획·준비한 '노을음악회'와 '2019 서도역 가을음악회', '숲속 작은 음악회' 등 3개 축제가 열린다.

오는 31일 열리는 노을음악회는 보절면 공동체조직의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다. 보절면 공동체조직은 마을주민들이 일손이 바쁜 농촌활동을 뒤로하고 짬을 내 갈고뫼는 다양한 악기 실력을 자랑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도리 주민공동체도 가을밤을 음악으

로 수놓는 축제를 연다.

이 공동체는 다음달 20일 '2019 서도역 가을음악회'를 열어 기타와 피아노, 색소폰 등을 손주와 손녀, 마을주민들에게 선보인다.

또 보절·용평 휴양체험마을 위원회에서는 다음달 28일 '숲속 작은 음악회'를 열어 벚가 익어가는 가을밤, 시민들에게 가을밤의 낭만을 선물한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운봉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운봉주민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밤 축제'가 8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남원시 제공>

지난 10일 남원 운봉 농촌중심지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운봉주민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밤 축제'가 8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남원시 제공>



지난 10일 남원 운봉 농촌중심지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운봉주민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밤 축제'가 8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남원시 제공>

로 수놓는 축제를 연다. 이 공동체는 다음달 20일 '2019 서도역 가을음악회'를 열어 기타와 피아노, 색소폰 등을 손주와 손녀, 마을주민들에게 선보인다.

또 보절·용평 휴양체험마을 위원회에서는 다음달 28일 '숲속 작은 음악회'를 열어 벚가 익어가는 가을밤, 시민들에게 가을밤의 낭만을 선물한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운봉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운봉주민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밤 축제'를 통해 주민 주도형 농촌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축제에는 800여명의 관광객들이 참여해 여름밤의 주민콘서트와 귀신체통 등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



한옥마을 방송국 개국...전주 역사·문화 소개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을 알리는 방송국이 개국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전주의 역사와 문화 등을 소개하고 여행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옥마을 방송국'이 지난 18일 개국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사진>

시는 한옥마을에 있는 전주시 현장 시청에 IP 방송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거점으로 오목대관광안내소와 전통문화연수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했다.

또 태조로와 은행로의 낡은 스피커를 교체 또는 신설하는 등 40개의 스피커를 정비했다.

특히 매주 금~일요일 오후 1시 30분

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현장 방송은 업서로 여행객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아 소개한다.

청소년과 대학생 등 젊은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의 특성에 맞춰 유튜브 방송도 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세종 전주한옥마을비밀공동체 이사장은 "주민 주도로 한옥마을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방송국이 만들어져 기쁘다"면서 "출발 단계라 부족하지만,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전주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치유 1번지 순창' 소아 당뇨캠프 눈길

군, 환자 가족 70여명 초청 발효소스토클 체험 등 건강 되찾기

순창군이 '치유 1번지 순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족과 함께하는 '소아 당뇨 캠프'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순창군에 따르면 군이 주최하고 (사)한국당뇨협회가 주관한 캠프가 전국에서 소아 당뇨인 가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순창 실(SHIL)랜드 일원에서 진행됐다.<사진>

이번 캠프는 당뇨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순창의 좋은 기운을 받아 몸과 마음 모두가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

소아 당뇨는 주로 10세 전후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인 당뇨와는 달리 인슐린에 의존하는 형태로 치료가 이뤄지다 보니 가족들 간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한 질환이다.

캠프 첫날인 지난 15일에는 황숙주 순창

군수가 직접 교육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맞았다.

이날 황 군수는 "소아 당뇨는 아이 혼자 해결하기보다 가족이 힘을 모아 극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캠프를 통해 순창에서 생산된 바른 먹거리를 먹고 순창의 자연 속에서 건강을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둘째 날은 강천산, 발효소스토클, 고추장 체험 등 순창문화체험을 통해 순창의 맛과 멋에 매료되는 시간과 BD(백토디킨슨코리아) 황은영 과장에게 자가 인슐린 주사법을 배우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한편 순창군은 오는 11월 6일에는 2박 3일에 걸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당뇨 캠프를 열 계획이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정읍시, 취약계층 폭염 대응 총력

이달말까지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

정읍시가 막바지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읍시는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이달말까지 자율방재단과 함께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점검·운영한다.

무더위쉼터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과 무더위쉼터 활성화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7월 각 읍·면·동의 무더위쉼터 중 지역별로 접근이 쉽고 이용이 많은 대상지를 선정해 총 12개소를 시범 지정했다.

또 시는 만65세 이상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는 8월 말까지 순회하면서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무더위 쉼터에서는 어르신 노래

교실과 네일아트,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수지침 체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폭염 관련 홍보물품 배부와 폭염예방 활동 안전교육 등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지역 그늘막 설치와 주요 승강장 열을 비치, 폭염 저감 시설(에어커튼 등) 설치, 읍면동 주요 도로 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사진>

이외에도 시는 관련 부서 간 폭염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기술센터와 보건소는 농업시설과 가족시설, 어류시설, 보건 취약계층 등을 방문해 인명안전과 농축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폭염경보시 재난문자와 전광판 송출 홍보, 마을 재해음성 통보 시스템 운영(258개소) 등 폭염 대응 행동요령도 홍보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 '최우수'

익산시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로 오는 12월 복지행정상 합동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4월 1차 서면평가를 통해 우수 후보군에 선정됐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의 2차 대면평가로 최종 선정된 32개 지자체 가운데 최우수 지자체로 결정됐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시는 지난해 지역주민 삶의 만족도가 높은 공동체 실현, 촘촘한 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족기능 강화 여건 조성 등 3가지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52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민관협력을 통한 나눔기부사업, 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업, 지역특성에 기반한 사회보장영역 확대사업(일자리 사업 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군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백세만세 운동교실 운영

군산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다음달 3일부터 11월21일까지 주 2회(화·목) '백세만세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운동교실은 서부권(소룡·미성·산북동)에 거주하는 65세 미만 대상자 중 유연성과 근속 발달 및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상자 중은 북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좋은 콜레스테롤(HDL)

부족 등 5가지 위험요인 가운데 3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며, 당뇨병과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뚜렷한 증상이 없어 빠른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사전·사후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해 운동 효과를 분석하고, 간호사·영양사·운동처방사와 1대1 건강생활 실천 상담으로 맞춤형 식단 및 운동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토지 5000평 매매

지리산 관광온천 지구

- 계획관리지역, 전망풍물
- 답 3300평, 임야 1355평, 전 330평
- 송원리조트(블루센) 옆, 현 상업 나대지 상태
- 지리산 골프장/케이볼카 유치중
- 모든업종 개발가능
- 감정/시세 - 약 30억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